

유류세 인하 효과 고작 15일?

광주 시내 주유소 휘발유값 다시 올라
경유는 稅인하 전보다 되레 비싼 곳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는 불과 보름을 넘지 못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서민들의 주름이 다소 펴지는 듯했으나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름값은 유류세 인하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만 것이다.

유류세 인하된지 불과 보름만인 26일 광주시 남구 모 주유소, 가격안 내판에는 '1 당 휘발유 1천709원, 경유 1천539원'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이 주유소는 지난 10일 유류세 인하 직전 휘발유 1천704원, 경유 1천533 원씩 판매해오다 유류세 인하와 동시에 10일부터 54~55원씩 내려 휘발유 1천649원, 경유 1천479원에 판매했다. 불과 보름만에 휘발유, 경유 모두 유류세 인하 전에 판매하던 가격과 각각 5.6원 차이만 날 정도로 유가가 다시 오른 것이다.

이 주유소를 찾은 이모(34·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며 "정부가 유류세 인하정책을 펼치길 했느냐"고 반문했다.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김모(42·북구 운암동)씨는 "유류세 인하에 기대를 했지만 몇 주 만에 기름값이 더 올라 이어가 없었다"며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적자폭을 줄이는 일"이라며 한숨만 내쉬었다.

광주·전남 불법 선거운동 36명 수사

오는 4월 9일 치러지는 18대 국회 의원 선거와 관련, 광주·전남 지역에서 모두 36명의 불법선거운동 사범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26일 "다음달 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3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 선전사범 4명 ▲불법 선전사법 3명 ▲명함 등 흥보 물 불법 배부 등 기타가 17명이었다.



26일 광주시 남구 모 주유소 종업원이 가격이 오른 휘발유 숫자판을 부착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nj@

이에 대해 주유소 관계자는 "기름값은 거의 본사 지침에 따라 변동폭이 정해지는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려진 지난 10일 이후 주유소마다 60원~80원 가량 기름값을 내렸지만, 20일 이후부터 휘발유와 경유 모두 올리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다른 주유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광산구의 G주유소는 정부의 인하조치 이후 1 당 1천699원 하던 휘발유 가격을 84원 가량 내렸지만 보름 만에 1천670원으로 올렸다. 1천531 원 하던 경유는 1천464원까지 내렸다.

가 1천533원까지 인상했다.

북구 D주유소는 인하조치 전·후부 터 26일까지 휘발유가 1천680원→1천699원→1천673원으로 가격이 변동 됐으며, 경유도 1천571원→1천496원→1천569원으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광주시내 주유소 10곳의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를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다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조사대상 10개 주유소 중 2곳에서는 경유가격을 유류세 인하 전인 지난 9일 가격보

다 더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주유소들의 '업체 상훈'도 가격폭등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가 인하요인이 있을 때는 재고 분 소진 등을 이유로 기름값 인하를 미루다가 가격 인상요인이 생기면 재빨리 기름값을 올리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관세율 인하와 정유사 가격공개가 이뤄지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보존회장 피살

20대 용의자 검거

26일 오후 6시15분께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생가보존회장 김재학(81) 씨가 20대로 추정되는 과한이 휴대폰 흡기이며 머리를 맞아 숨졌다.

경찰은 오후 6시30분께 사건 발생 장소로부터 500m 가량 떨어진 D축산 옆 공터에서 용의자를 붙잡았다.

신고자 김모(50) 씨는 "아내와 함께 생가를 구경하러 갔다가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김 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끈으로 손과 발을 묶고 옷 가지로 입을 틀어막은 상태에서 흥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용의자가 목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CCTV에 범행장면이 찍혀 있어 범행동기와 범행수법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서운 남편'

보험금 노려 내연녀와 짜고 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내연녀와 함께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간호사인 내연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의학 지식을 동원해 내연녀의 부인 혈관에 특정 약물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조모(36)씨와 조씨의 내연녀 이모(여·28·간호사)씨를 살인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와 이씨는 지난해 6월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알게 된 뒤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조씨의 아내 박모(36)씨를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2월 16일 광주시 남구 봉평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박씨에게 술을 먹인 뒤, 이날 밤 임적이 드문 남구 포총사 인근으로 술취한 박씨를 데려가 간호사인 내연녀 이씨에게 특정 약물 20cc를 주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약물의 입수 경로와 교통사고로 은폐될 수 있었던 경위 등을 추가 조사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게 해 숨지게 한 뒤 내연녀 이씨가 교통사고로 위장, 거액의 보험금을 탔다. 이후 이씨는 사망사고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의했으며, 간호사인 이씨가 주사제를 이용한 살인 방법을 소개하자 이를 그대로 범행으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씨는 지난해 말 박씨 명의로 사망 보험금이 7억여원에 이르는 보험상품 7건에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9천800만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정상적 사고가 아닌 것 같다'는 보험사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한달여만에 끝마쳤다.

경찰은 이미 장례를 치른 박씨의 사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씨와 조씨를 주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약물의 입수 경로와 교통사고로 은폐될 수 있었던 경위 등을 추가 조사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밸코니
신규사시 투자 및 상담문의
▶ 서울본사 : 02-3445-0943
▶ 나주공장 : 061-337-0571

학부모 모임서 지갑 '슬쩍'

○...광주북부경찰은 26일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금품을 훔친 자모(여·34)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14일 밤 8시30분께 북구 두안동 S민속 주점에서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갖던 중 김모(여·32)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김씨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사용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네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동종전과 12번인 지씨는 출신 신용카드로 자신의 웃과 귀금속 등을 구입했는데, 경찰에서 "김씨가 지갑을 훔친 채 밖에 나가는 것을 보고 순간 탑이 났었다"고 진술.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역추적해 지씨를 검거.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나주문화 풍자판

중흥 글드레이크 외원권 분양·상담

글드레이크CC

글드레이크CC
제한·집한·NFC

글드레이크
제한·집한

글드스파티리조트

글드스파티리조트
10·28·38·57평형

글드스파티리조트
(전도+방향화면)
10·28·38·57평형

글드레이크밸리지

글드레이크밸리지
• 17평형~20평형
• 21평형~24평형

글드레이크밸리지
• 17평형~20평형
• 21평형~24평형

청정호수 전원주택단지 분양

